

Rocca di Papa, 13 dicembre 2014

Collegamento CH: "Il dono"

## APERTURA E SALUTI

*(musica)*

GiBi: 어디에 필요할까?

DoppiaW: 어디에...? *(pausa)* 내게 한 번 줘 봐!

*(musica)*

GiBi: 오, 또 생겼네!

*(musica)*

Margaret Karram: 안녕하세요! 이 합동전화를 위해 연결된 여러분 모두에게 로카 디 파파에서 인사보냅니다.

Paolo Balduzzi: 차오, 모두 함께 성탄을 축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Margaret: 이 합동전화의 제목은 시작 시 우리가 보았듯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세계 여행을 할 것이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으로, 모두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Paolo: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인 아기와 이라크인 나드르와 연결되었는데, 이스탄불에서 살고 있습니다.

A'gi e Nadir: 네, 여보세요!

Paolo: 연결되었네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A'gi e Nadir: 감사합니다!

Paolo: 여기 모두의 인사를 보냅니다.

Nadir: 네, 모두 안녕하시지요.

Paolo: 미디어를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앙카라 여행과 그 후 이스탄불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을 방문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요?

A'gi: 2014년에 두 분이 함께 한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두 교회 사이의 일치를 향한 이 여정에 속도가 가해진 듯 합니다. 우리 역시 가톨릭 교회와 정교회를 위해, 특히 신문기자들과 교황님 관저에서 봉사하며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Paolo: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Nadir: 이번처럼 터키 TV와 신문들이 두 종교 지도자들 간의 모임에 대해 이렇게 풍성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들 마음에는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줄 아는 "일반" 사람으로서의 이 교황님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수많은 보물들 가운데, 이 나라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특히 터키에 우리에게도 형제애의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이 나라의 가교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Margaret: 아기와 나디르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스탄불에 감사드리는데, 정말 두 대륙을 이어줍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A'gi e Nadir: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Margaret: 이제 이 강당에 있는 누가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마가렛이고, 예루살렘 출신으로,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5년 정도 로스엔젤레스에서 지내며 대중교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로마로 이전했습니다

Paolo: 저는 바올로이고 피렌체 근교 로피아노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에서 살며 프리랜스 신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로마 남부 라티나 구역 공동체에게 인사하고 싶은데, 합동전화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인 안토니오와 로렌조가 여러분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읽어줄 예정입니다. (*Applausi*)

Margaret: 그리고 카스텔간돌포에서 피정 중인 여러 대륙에서 온 600명의 포콜라리노들을 대표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Applausi*)

Paolo: 그리고 카스텔간돌포에서 피정 중인 여러 대륙에서 온 600명의 포콜라리노들을 대표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Applausi*)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금부터 이 합동전화에 영상과 경험, 아이디어로 그리고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 합동전화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며 기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전화 동안 늘 하듯이 00 39 3428730175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collegamentoch@focolare.org](mailto:collegamentoch@focolare.org), 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웹 페이지나 **Collegamento Ch** 페이스북에 바로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 CONGO: UNA GEOGRAFIA SEGNATA DALLA SPIRITUALITÀ DELL'UNITÀ

Margaret: 여행을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콩고로 가겠는데, 방대한 국가로 포콜라레 영성을 살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도록 합시다.

(*musica*)

Speaker (in italiano): 7천 2백만의 인구, 100여 인종들, 242개 상용 언어들. 서 유럽에 맞먹는 면적을 지닌 콩고 민주 공화국을 사진 찍기란 어려운 일이다. 땅 밑에는 금, 다이아몬드, 석유와 컴퓨터와 핸드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희귀 금속 콜탄이 풍부하다. 다국적 기업의 탐욕과 엄청난 자원 통제와 관련된 여러 차원의 부정 부패는 20년 이상 국민들이 살아 가는 비극적 상처의 원인이다. 수백 만의 사상자와 수많은 어린이 병사들을 야기하는 전쟁들, 60여 개의 무장 그룹이 일으키는 모든 유형의 폭력들. 그 결과는 기아, 질병, 강간, 제도적 남용, 엄청난 피난민 등이다.

Aga Kahambu (in francese): 콩고 민주 공화국은 강한 대립을 지닌 국가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영성은 이런 도전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낙담할 수는 없으며, 이런 도전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Speaker: 1991년 킨샤사에 첫 포콜라레가 열렸다. 20년 후 카당가 주 루봉바쉬에 열렸다. 남서부 키퀴트와 북동부를 위해 고마에 두 가정이 이동한 사실은 이 방대한 지역의 끼아라의 가정을 돌보도록 해 주었다. 한 가정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일치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Julie Katoto (in francese): 저희는 앙드레, 줄리 카토토이고, 루봉바쉬의 가정 포콜라레로 3년 전에 고마로 이전했습니다. 아들 3명, 딸 하나,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André Katoto (in francese): 5개 구역공동체가 킨두 시에 태어났고, 몇 달 전에 마리아폴리를 계획했습니다.

Speaker: 작년 한 해 동안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에는 지난 과거에 콩고의 몇몇 지역에서 고립되어 남은 그룹이나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 일이 우선권이 되었다.

Marisa Sechi (in italiano): 전쟁 후 도시와 도들을 이어주는 국도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섭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았지요. 몇몇 아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유엔의 비행기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Alain Bertrand Temgoua (in italiano): 저는 우리가 두 개의 마리아폴리를 했던 이시루와 움바를 향해 펼쳐진 열대 밀림을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둔구의 다른 도시에 태어나고 있는 구역공동체에 가야만 했는데, 밤에 밀림을 통과하며 생긴 차 타이어의 8개의 구멍으로 인해서 16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Didascalìa : 으부지-마이 - 동부 카사이의 마리아폴리

uomo (in francese): 제게 더 감명을 주었던 것은 포콜라레 이상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종교인들 모두에게 일치를 살고 서로간의 사랑을 키워가도록 초대한다는 사실입니다.

donna (in francese): 오늘 서로간의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저는 모두와 화해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donna (in francese): 처음으로 마리아폴리에 참석했는데, 매우 흥미로워요.

uomo (in francese): 세상 곳곳에서 삶이 정말 이렇하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sacerdote (in francese): 우리가 되돌아 가면 우리 본당이 참된 형제애, 사랑, 일치의 포콜라레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Paulo José Melo (in francese): 중동,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에서 온 사람들의 참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들은 휴가를 이용해 여기에 왔으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 것은 방대한 이 나라의 여러 곳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Erik Hendriks (in francese): 저희는 두 개의 가정 모임을 위해서 고마의 한 부부와 전쟁이 심한 동부 키유에 갔습니다.

Hennie Hendriks (in francese): 우리 각자가 우리 문화권 밖에서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TV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고, 세상에 열려있게 해 주며,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지요

Erik Hendrik (in francese): 이런 의미에서 상호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이상이 그 부부에게,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유럽 사람인 우리의 매일의 삶과 우리 가정 또한 도와줍니다.

Aga Kahambu (in francese): 이 서로간의 사랑은 콩고에서 일치된 세상이 하나의 현실임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었어요. 콩고는 동양과 유럽에 가지 않았지만 여기에 온 형제들을 통해서 일치를 체험했어요. 일치된 세계는 유토피아가 아니며, 우리는 이 일치된 세계를 살았어요.

## BELGIO: CONCERTO DELLA FRATERNITÀ

Paolo: 우리는 선물에 대해 말했는데, 선물을 잘 포장하는 일은 시간과 인내심, 수고 또한 요하지만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벨기에의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에서도 그러했으며, 그들은 함께 무언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A NOUFISSA (in francese): 사실 한 여정이 제게 이 콘서트를 실현하도록 밀어주었고 용기를 주었어요. 무슬림으로서 그리스도인 운동인 포콜라레 운동과 20년 이상 함께 걸어가며 마침내 우리는 우리를 이어주는 무언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애 콘서트를 생각하게 되었지요.

일년 이상 힘겨운 준비 작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그룹과 무슬림 그룹이 저녁 시간의 주인공인 젊은이들 차원에서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기를 주장했어요. 그 날 우리는 하느님의 강한 현존을 느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긴장과 증오 속에 우리가 실현한 것은 이 땅 위의 작은 천국의 공간이었어요. 이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지요. 지금도 계속해서 참여해서 기쁘다고 얘기하는 증거들, 메일들, 메시지들을 받고 있어요.

ISABELLE FOCANT (in francese): 콘서트 당일 날 두 개의 어린이 합창단을 환영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리스도인 측에서는 독일어권 남자 청소년 합창단이 있었고, 무슬림 여자 청소년 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선입견들과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개방성이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이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 함께 대화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끝 무렵 그들은 실제로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모두가 평화를 위해 살고 싶은 바람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녁 내내 그들은 함께 노래 부르며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 TRIESTE (ITALIA) E JÁNOSHALMA (UNGHERIA): IL DADO DELLA PACE DALLE SCUOLE ALLA CITTÀ

Paolo: 평화의 주사위를 기억하지요? 함께 봅시다 Guardate, facciamo girare un po', eccolo qua, lo vedete: è un dado un po' speciale. Vediamo un po'.

**Bambino 1** 주사위를 들어 던지게 되면 “모두를 사랑하자”, 그 다음엔 “먼저 사랑하자”, 아니면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자”라는 구절이 나와요.

**Bambina 2** 주사위는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어요.

**Bambino 3** 주사위는 우리에게 평화를 살게 해 주어요.

*(musica di sottofondo)*

Margaret: 얼마 전에 우리는 트렌토의 “평화의 화단”에 대해 말했고, 평화의 주사위를 살고 있는 학교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도시에도 이르렀고 이 중 11월 21일 트리에스테에서 마르티니 부시장은 도시 공원에 평화의 화단과 평화의 주사위를 축공했습니다.

Paolo: 헝가리 남부 자노살마에도 도시 중앙에 위치한 한 공원에 거대한 주사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특별하고 양 사방이 1 미터 이상의 거대한 주사위입니다. 이 주사위 또한 여러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며, 드러나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도시에 이 주사위를 알려 주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Margaret: 메시지나 편지들이 도착했나요?

Antonio: 두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포르토 공동체의 인사를 보내요. 오늘 날 인류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선물을 받고 건설할 수 있어 우리도 무척 행복해요."

Lorenzo: 알제리 무슬림 포콜라리노 라심의 메시지입니다. "트렘센 포콜라레에서 인사보냅니다. 저는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과 끼아라와 함께 이 일치된 세계와 보편적 형제애를 위해 함께 합니다." (*Applausi*)

## SIRIA: UNA GUERRA LUNGA E IL MOLTIPLICARSI DELLA CONDIVISIONE IN MEZZO ALLE SOFFERENZE

Margaret: 이태리 저자 티치아노 테르자니는 <<전쟁은 슬픈 사실이지만 이보다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이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마스코의 라흐메와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들어봅시다.

Rahmé Breiki (in arabo) :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으며, 이제 모두가 알고 있듯 길고 힘겨운 전쟁은 3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극한 긴장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늘 무장 그룹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곳곳에 떨어지지만 아무도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박격포와 미사일의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외에도 종종 물도, 전기도, 휘발유도 없으며 무엇보다 지금처럼 전기도 가스도 없는 겨울에 추위를 견디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늘 집을 나서면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느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항상 느낍니다.

다마스코와 시리아의 다른 지방에 있는 포콜라레 공동체로서 우리는 포콜라레 운동의 큰 은총과 이상의 은총을 느끼는데, 즉 우리는 초창기 때 끼아라와 더불어 살았던 것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전쟁의 시기였으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들의 집을 두고 떠났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요르단, 레바논 혹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갔지만 시리아를 떠나지 않은 다른 가정들도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작은 프로젝트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아무 것도 없이 집을 떠났기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 그렇게 우리 사이에 매우 아름다운 관계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 중 누군가는 포콜라레 운동에 대해 알기를 청했고 생활말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 우리가 그들과 했듯이 그들 중 몇몇이 새로운 가정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 안에서 평화를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들에게 이 평화는 전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서 우리는 매우 서로 다르며, 그리스도인들, 무슬림들이 있고 이런 다양성의 부유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유함을 다른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유함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평화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저를 많이 도와주는 것을 느낍니다.

## COMUNITÀ LOCALI IN AZIONE

Paolo: 주는 것, 받는 것, 나누는 것: 이 세 마디 말은 성탄의 의미를 말해 줍니다. 구체적이고 단순한 행위들은 올 한 해 동안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말해 줍니다. 짧게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Didascalìa: 한국

Speaker: 성탄 시기는 한 해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노인, 독거인, 장애우에게는 집의 난방을 위한 연탄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러 도시에서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필요한 연탄을 구입하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를 시작했다. 공동체의 너그러움을 체험하면서 더 시급한 필요성을 채울 수 있었다.

Didascalìa: 인도

Speaker: «소리 없는 사랑은 우리를 지탱해 주고,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은 참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중동 공동체가 뉴델리 공동체에 보낸 말이다. 집에서 만든 파스타는 전쟁 피난민 가정을 위해 기금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다. 같은 목적을 위해 방갈로에서는 피자를 요리해 판매했고, 거두어들이는 자금으로 젊은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동년배들을 도와줄 수 있었다. 이웃을 위해 손에 물을 묻히는 것이 그저 슬로건만은 아니다.

Didascalìa: 말레이시아

Speaker: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기쁨이 남았습니다.>> 이는 3살에서 16살에 이르는 2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주하는 고아원을 방문하고 난 후 말레이시아 폐낭 공동체가 적어 보낸 글이다. 그들과 함께 놀고 노래 부르며, 함께 선물을 준비한 일은 사랑의 실천이 날아주는 기쁨을 더불어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Didascalìa: 필리핀

Edward: 필리핀의 에드워드입니다. 2013년 11월 역사상 가장 강한 태풍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비사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들인 우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게 저녁을 제공했으며, 아이들에게는 장난감과 선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Start Again’ 다시 시작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가이타이에서 머무는 여러 나라의 15명의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미소를 전해주기 위해 피해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했던 그 지역의 여러 기관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사랑에 더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태풍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체험했던 고통보다 더 거대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Paolo: 우리는 숨을 죽이며 지난 며칠 간 하구피트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다행히 강도가 줄어들었고 대피 작업은 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이 시기에 마닐라의 니코와 자주 연락을 취했으며,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Start again” 다시 시작하기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며, 바로 이틀 후에 한 그룹이 계획한 대로 출발할 예정으로, 마닐라의 한 동네와 비사얀 지역의 4개 도시에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과 필수품을 전해 줄 것입니다.

Margaret: 2014년 미국 “타임”지의 마지막 표지는 “올 해의 인물”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와 사투하는 모두에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요 동기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감수하며 인류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영웅들” 가운데에는 시에라 레온의 5개 도시에서 일하는 18명의 선교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마케니에서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와 함께 하는 카를로 신부님입니다. 어제 아침 카를로 신부님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Paolo Balduzzi: 카를로 신부님, 통화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Padre Carlo: 차오 바올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Paolo Balduzzi: 지금 그곳의 에볼라 바이러스 상황은 어떠한지요?

Padre Carlo: 애석하게도 여기 시에라 레온에서는 아직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작 시 부터 희생자들은 1,823명이지만 매일 80, 90의 새로운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통계는 확실한 수치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만, 정부와 국제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그 이상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Paolo Balduzzi: 그럼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Padre Carlo: 반응들은 다양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인 예방책을 취하지 않거나, 때로는 패닉 상태인데, 무엇보다 환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을 보기 시작하거나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여기서는 늘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에, 격리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추거나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며 마을에서 도망을 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염이 확산되게 됩니다. 슬픈 상황입니다. 소규모의 경제 또한 동결되었고, 학교는 폐쇄되었는데,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병원들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보건소 역할만을 하는데, 수많은 의사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득합니다.

Paolo Balduzzi: 사베리오회 선교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포콜라레 공동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Padre Carlo: 우리는 무엇보다 격리된 가정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에볼라에 감염된 가정들이기에 격리되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에 음식을 가져가며 그들을 돌봐주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영웅들”이 아니며 그렇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도 두려웠지만 사랑하고자 하고 모두와 하나가 되고자 하면서 차츰 차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때론 저도 오랜 전쟁 후에 지금 시에라 레온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엠마우스는 제게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끼아라가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격리된 한 가정을 방문하는 중에, 한 노인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작은 공동체와도 이 사랑을 생생이 유지하고자 합니다. 한 여자 젠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매일 미사 중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버림받으신 예수님께 미소짓고자 노력한다고 적었습니다. 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 작은 그룹으로 생활말씀이나 늘 일주일 후에 도착하지만 이 거대한 가정의 일원이라고 느끼게 해 주는 합동전화를 위해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에 보내준 기도와 구체적인 도움, 일치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Paolo Balduzzi: 우리가 여러분에게, 카를로 신부님에게, 선두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의 성탄 인사보냅니다.

Padre Carlo: 감사합니다.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Paolo Balduzzi: 그럼요. 물론입니다.

Margaret: 시에라 레온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타이완에서 도달합니다. 그럼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태리 사람 발렌티나와 연결하겠습니다.

Valentina: Esatto, ciao.

Margaret: Ciao Valentina.

Valentina: 안녕하세요. 시에라 레온을 위해 여기 타이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얘기할게요. 시에라 레온의 젠인 존의 경험과 그의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민감성을 조성하고 에볼라 감염을 줄이려는 그의 노력을 함께 읽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음식도 부족하고 누군가는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젠들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하고자 했고 케익과 비스킷을 만들어 팔았어요.

다른 신념을 지닌 다른 대학생들도 이 활동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프리카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들의 아프리카를 위한 이 활동에 대해 우리에게 감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젠은 “여러분의 아프리카는 우리의 아프리카로, 우리 모두는 형제야”라고 답했어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다른 활동을 조직하고자 해요. 비록 우리는 에볼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 함께 일치된 세계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Margaret: 발렌티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사를 보냅니다.

Valentina: 네, 차오. (*Applausi*)

Margaret: 시에라 레온의 에볼라 바이러스와의 투쟁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은행 계좌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니면 일치된 세계를 위한 활동 홈페이지에서 시에라 레온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Conto corrente bancario intestato a: Associazione Azione per un Mondo Unito Onlus – Via Frascati 342 – 00040 Rocca di Papa (Roma, Italy) / Codice IBAN: IT16 G050 1803 2000 0000 0120 434 / Codice SWIFT/BIC: CCRTIT2184D / Causale: Emergenza Ebola.*

## ITALIA: UNA VITA IM-POSSIBILE

Paolo: <<삶은 기회입니다. 이를 잡으십시오.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니 잘 보살피십시오. 삶은 삶입니다. 이 삶을 지키십시오.>> 이는 캘커타 마더 데레사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는 한 스토리를 얘기하겠습니다. 끼아라 에스파의 이야기입니다.

Didascalìa: 이탈리아, 칼리아리

Marco Espa: 끼아라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와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후 심각한 건강 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매우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끼아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았는데, 심각한 간질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Ada Espa: 이 아이는 다른 아이, 다른 자녀가 지니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Marco: 전문가들은 끼아라가 극단적인 그녀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혼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da: 이 때문에 의사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녀를 돌볼 수 있는 한 기관에 끼아라를 맡기기를 제의했습니다.

Marco: 우리는 가정의 어려움이 가정 구성원들의 문제들을 넘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신했기에 의사의 이 말에 미소를 지었는데,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저명한 의사는 별거자였으며 장애 아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Ada: 이보다 우리에게 끼아라는 그녀의 장애로 인해 나와 마르코 사이를 이어주는 궁극적인 일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더 많은 소통과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동질감을 갖도록 해주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데, 이 사실은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해 주었습니다.

Ada: 첫 상실감이 지난 후 이 아이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힘, 사랑, 사랑받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또한 먼저 사랑하려는 그녀의 에너지도 느꼈습니다.

Marco: 끼아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우리를 비우고자 했습니다.

Marco: 다른 가정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자녀를 기관에 맡길 수 밖에 없었던 다른 가정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정과 더불어 샤프데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차츰 전 이탈리아로 전파된 첫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갖기 위한 제도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Ada: 제게는 끼아라가 태어난 이 후로 이런 발전이 있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큰 만족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개별화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며, 2000년도에 123 개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3만 8천 개, 곧 3만 8천명이 되었으며 각 프로젝트에 이름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창출했고 불법 노동을 없애 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가요? 중증 뇌손상을 입은 한 아이입니다.

(sequenza segreteria ufficio centro )

Ada: 기억나는데, 제게 심각한 위기와 강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이유를 모르고 더 이상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순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는 것이 낫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이 이런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지니 것 같으며, 계속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는 가정이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Marco: 우리는 몸소 이를 체험했고, 끼아라도 몸소 이를 체험했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랑이 흐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선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Ada: 정말로 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 한다면 이는 전 공동체에 유익한 것입니다.

Didascalie

PRIMO CARTELLO

끼아라 에스파는 몇 달 간만 살아야 했지만,  
2014년 7월 15일 27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SECONDO CARTELLO

끼아라와 샤프데니아 가정들의 투쟁으로 인해 중증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 162/1998이 승인되었다.

## TERZO CARTELLO

이 법은 그 외에도 가정 방문 도움과 개별 도움, 개별화된 계획을 예상한다.

## QUARTO CARTELLO

2014년 사르데니아에서는 3만 8천 명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3만 8천 개의 개별 프로젝트가 후원되었으며, 연간 보건비용 3억 유로를 절약했다.

**BRASILE: PER RICORDARE TICO DA COSTA**

Margaret: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계속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티코 다 코스타의 친구들은 음악가이며 몇 년 전에 짧게 생을 마감한 그를 매년 콘서트를 열려 기억합니다.

Tico da Costa (canta): “*Pensavo di cantare una canzone, una canzone per te...*”<sup>1</sup>

Tico da Costa (in italiano):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언제 음악을 시작했고? 음악이 너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질문합니다. 3살, 4살 때부터 저는 음악에 대한 성소, 확신을 매우 강하게 느꼈으며, 하느님께서 “너는 음악가가 아니라 미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까 봐 늘 두려웠습니다. 조금 더 커서 16, 15살이 되었을 때 하늘과 우주의 별들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느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으며,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성소를 깨닫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 경우를 보면 세상을 다니며 사람들을 노래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brano canzone in brasiliano)

Speaker: 브라질 음악가 티코 다 코스타는 2000 곡 이상의 노래와 음악, 100여 개의 글들과 어린이를 위한 시들을 유산으로 남겼다.

끼아라 루빅과의 우정은 그의 삶과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40여 년 동안 18개의 앨범을 녹음했으며, 그 중 6개는 이탈리아에서 5개는 미국에서 녹음했다.

“여러 목소리, 한 노래” 쇼는 브라질 그의 고향인 도시의 라아쿠엘로 극장에서 열렸다. 티코를 추모하며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는 이제 6회에 이르렀으며, 이 시기 동안 세계 여러 나라 450명 이상의 예술가들이 참여했다.

그를 알게 되었던 음악가들과 인사들에게서 많은 증언들이 도달했으며, 리나 웨스뮐러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Lina Wertmuller – regista (in italiano):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를 다채로운 색을 띤 나비 외에 다른 것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비는 무엇인가요? 봄날의 하늘을 날아가는 아주 작은 색깔과 아름다움의 마법으로, 그 후 사라집니다. 하루만 살지만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겨줍니다.

(*musica e applausi* – *didascalia*: [www.ticodacostaoficial.com.br](http://www.ticodacostaoficial.com.br/) / [www.ticodacosta.com](http://www.ticodacosta.com) )

\_\_\_\_\_ (Applausi)

1 Al Congresso Gen 1976 a Rocca di Papa, accanto a Chiara Lubich.

Margaret: 브라질 나탈에서 우리와 연결된 부인 사라와 자녀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안토니오, 로렌조 메시지들이 도달했나요?

Antonio: 많이 도달했는데,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시드니에서 인사보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아름다운 가족 시간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합동전화에 대해서, 파나마에서 이 성탄 선물에 감사드려요."

Lorenzo: 라티나의 엔조는 "합동전화가 어떻게 기쁨과 고통을 지닌 온 인류가정을 하나라고 느끼게 해 주는지 너무나 놀라워요." 라고 적었습니다.

훈두라스 공동체는 "수많은 불꽃처럼 세상을 감싸 안으며 희망을 주는 이 서로간의 사랑의 파도를 보게 되어 행복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Antonio: "합동전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를 눈에 보이게 하나게 되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몬테 젠들의 인사입니다. "세상에 보편적 형제애를 전해주는 우리의 일치의 결실을 보게 되는 매우 기쁩니다."

Lorenzo: 브라질 벨렘에서는 "제 교구에서도 주교님에 의해 사랑의 주사위가 작동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복음적 이상의 신선함에 대해 콩고에 감사드리는데 유럽에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Margaret: 고맙습니다! (*Applausi*)

## ALCUNI FATTI SIGNIFICATIVI DELL'ANNO 2014

Paolo: 이제 조금 색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함께 한 해 동안 찍은 여행이나 기념일 사진을 바라볼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며,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이에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Francisco Canzani: 네 맞습니다.

Paolo: 정말 다행인데, 그로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칸자니는 우르과이 사람이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사셨고, 며칠 전에 여기 이태리로 오셨습니다.

Francisco: 5일 전에 왔습니다.

Paolo: 5일 전에, 아무튼 첫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Francisco: 3월 끼아라와 종교인 모임입니다.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형제"라는 이 책으로 인해 의미적인데, 6개 종교, 300명의 사람들, 형제애로 모두가 이상 안에서 만남의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끼아라를 그들의 어머니로 알아보았는데, 이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룹과 함께 왔었습니다.

Paolo: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지요.

Francisco: 네. 이것은 지속되었고 이 형제애의 관계는 카리스마를 이룹니다. 이는 놀라운 일로, 저는 여러 종교가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그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임에만 참석했기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Paolo: 아마도 처음으로 여러 종교들이 함께 만났다는 이 사실이 새로움일 것입니다.

Francisco: 사업회를 위해서도 새로움이지만 무엇보다 서로 형제로 느끼는 것은 정말 커다란 새로움입니다.

Paolo: 감사합니다.

제 오른 편에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온 쥬느비에브 산츠가 있습니다. 17년간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살았는데, 몇 주 전에 여기 로마에 왔지요. 두 번째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 모두가 경제 위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구직 문제, 가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몇몇 통계를 통해 예를 들어 로마 카리타스 식당에는 걸인들만이 아니라 매번 더 월말에 이르기가 어려운 가정들 또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Géneviève: 오늘 이 합동전화를 보면서 우리는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답을 찾은 것 같은데, 재산의 공유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세계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이를 보게 됩니다.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 위기는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끼아라는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공유경제를 선포하도록 했는데, 인류를 향해 사업회를 나가게 해 주는 성령의 답이며, 우리에게 이런 형제애와 동등성을 경험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Paolo: 쥬느비에브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마가렛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Margaret: 제 왼쪽 편에는 마리아 빈켄이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Maria: 독일입니다.

Margaret: 교회일치운동을 위해 많이 일하고 계시지요.

Maria: 네.

Margaret: 이제 이 사진을 보겠는데, 알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약문인 것 같은 한글 밑에 여러 서명들이 있습니다.

Maria: 이 사진은 지난 11월 닐로 성당에서 열렸던 초교파 주교님 모임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들은 서로간의 사랑의 서약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수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이리를 살고 일하며 기여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며 이미 여러 방식으로 이것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교파 남녀 포콜라리노들을 생각해 보면 이미 이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서로간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함께 이어주는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 유산을 갖고 있고, 함께 이를 살 수 있습니다.

올 해 삶의 대화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예들을 듣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처음으로 두 책이 현대 그리스어로 출간되었고, 아테네와 살로니코 그리고 치프로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시사회에는 정교회인들, 가톨릭인들이 있었으며, 끼아라의 이 책과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의 소개말 또한 이미 결실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살았던 또 다른 순간은 일치 본부로서 우리가 매번 더 접촉을 갖게 되는 오순절 교회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해 했던 교회일치 학교였습니다. 전 세계 5억이라는 통계를 헤아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럽의 10여 명의 오순절 교인들과 더불어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들에 대해 조금 알고 지내지만 영신적 삶이 얼마나 우리를 이어주고 그들이 카리스마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들 중 누군가는 “우리에게 끼아라를 전해 주고, 카리스마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올 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해 이 선물을 주기 위해 더 주력해야 하는 새로운 박차를 느꼈습니다.

Margaret: 감사합니다. (*Applausi*)

여기 오른 쪽에는 체칠리아가 있으며, 다른 대륙에서 왔지요?

Cecilia: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으며,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르도바, 여러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Margaret: 지도를 보면서 아직 학교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을까요?

Cecilia: 글썽요.

Margaret: 이 사진을 보세요.

Cecilia: 아!

Margaret: 여러 표시들, 말들로 가득한 이 사진이 뭘 얘기해 주는지 말해주세요.

Cecilia: 망의 매듭들로 가득한 지도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생각나는데, 그들은 수많은 어려움, 여러 얼굴들 앞에서 피가 끓는 것을 느낍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빈곤이나 가난 만이 아니라, 오늘 합동전화를 보면서 세상에서 공감하게 되는 수많은 다른 고통의 얼굴들이 존재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에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희망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답하고, 오늘 날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시지만 카리스마가 우리를 만나러 가게 해 주는 번두리를 향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끔 해 줍니다. Margaret: 그러니 매우 의미있는 사진이지요?

Cecilia: 하나로 뭉쳐진 이 손들을 의미적인데,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해 줍니다.

Margaret: 체칠리아 감사합니다. (*Applausi*)

Paolo: 저는 디에고 골러 옆에 와 있는데, 이태리 사람이고 오래 동안 독일에서 지냈지만 얼마 전부터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좋아하는지요?

Diego: 그렇요.

Paolo: 조금 특별한 축배를 드는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Diego: 매우 아름다운 순간으로, 한 달 전 슬로베니아에서 찍은 것입니다. 모두 슬로베니아인으로 다양한 그리스도인 운동 그룹입니다. 함께 유럽을 위해 책임자들로, 끼아라가 몇 년 전에 영감을 받았던 운동들의 망입니다.

Paolo: 이 사진은 2004 년도에 찍은 것입니다.

Diego: 스튜트카르트에 있었는데, 여러 교회의 책임자들로, 끼아라, 안드레아 리카르디, 다른 책임자들로 유럽에 영혼을 주기 위한 생각을 지니고 만났습니다.

끼아라는 늘 천상 악보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이를 읽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곧 성경께서 더 화합되고 더 연대적인 유럽을 만들기 위해 유럽을 위해 무엇을 주고 어떤 영감을 주는지 본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이제 슬로베니아에서 우리가 결정한 그 다음 발걸음은 2016년 개혁의 땅인 독일 뮌헨에서 루터 개혁 500 주년을 맞이해, 이 15년 간의 함께 하는 삶과 여정의 결실을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여러 교회 책임자들과 인사들의 참여를 희망합니다. 500년 간의 분열은 충분하며 이제 우리는 더 화합된 유럽을 보고자 합니다.

Paolo: 많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Diego: 물론입니다.

Paolo: 감사합니다. (*Applausi*)

이제 엠마우스 차례입니다.

Emmaus: 제 차례군요.

Paolo: 엠마우스를 소개할 필요는 없기에 즉시 이 사진을 보도록 합시다. 바티칸 클레멘

티나 강당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11 월 몇몇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계십니다.

Emmaus: 11 월.

Paolo: 무엇 때문이었나요?

Emmaus: 이는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운동들 간의 모임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100 여 개 운동들과 일반 평신도 단체들에 속한 약 300 여 명이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경험으로, 정말 아름다웠는데, 모두들 사이의 관계와 우리 모두가 같은 뿌리의 자녀들임을 발견하게 해 주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으로, 뿌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서 태어났음을 발견한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동시에 이 유일한 뿌리에서 태어난 꽃들과 결실의 부유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유함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얼마나 일하시는지 보게 해 주었고, 이 부유함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부자이며 기쁨에 차 있음을 느끼게끔 해 주었습니다.

Paolo: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얘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Emmaus: 내게 인사하셨지요.

Paolo: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Emmaus: 뭘 얘기했냐면, 아주 아름다웠는데, 특별히 기쁘고 애정 넘치는 인사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님과 참되고 개인적이며 깊은 관계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의미에서 총회에 허락하셨던 알현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재확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끼아라에게 주셨던 일치의 카리스마를 전해주기 위해 인류를 위한 중개자가 되도록 해 주는 우리의 친교의 카리스마의 고유성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Paolo: 감사합니다.

Emmaus: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Applausi*)

Margaret: 이제 예수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는데, 어디 출신이냐면...

Jesús: 스페인입니다.

Margaret: 사진을 보여 주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 클라라 루빅에게” 그리고 교황님 인장이 있으며, “파울루스 6 세’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특별한 편지는 끼아라가 받은 것으로 현재 그녀의 사무실에 걸려 있습니다.

헤수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1 월에 있었던 대회에 관한 것으로, 끼아라 루빅 센터와 바오로 6 세 기관에서 주선했던 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유형의 모임을 했으며, 처음으로 바오로 6 세 기관에서 한 인물에 대회나 세미나를 했는데, 보통 바오로 6 세나 교회일치적 현실, 사회적 현실에 관한 대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풍성했던 하루 모임이었습니다. 모든 차원에서 사회적, 역사적, 교회일치적, 신학적 차원에서 너무나 유익한 이 관계를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약하기란 어려운데,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같은 이런 특별한 역사적인 순간에 특별하고 섭리적으로 이 두 은사가 -오늘 우리는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로 모인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물로 의인화된 두 은사로, 바오로 6 세의 교계적인 은사와 끼아라의 카리스마적 은사로, 이는 공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부각되었는데, 그저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역사의 다른 순간에도 주목된 것이기 때문으로, 하나로 모이는 이 일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Margaret: 감사합니다.

이제 외교관인 파스칼레 페라라로 넘어가겠는데, 국제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사진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표하지 않고, 모두 떠나가기를 바란다. 무효표를 던지자” 라

고 적혀있는데, 이 사실은 정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Pasquale: 매번 더 정치와 제도의 위기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끼아라가 정체에 대해서 말했고 정치에 대해서 정의했던 관점, 정치가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관점이 참으로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오늘 날 생각하듯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는 사회와 사람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이 점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는데, 종종 정치를 수직적 관점에서, 그러므로 권력의 관계, 정치인을 직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무엇보다 봉사, 공동선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도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데, 이 차원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제도의 특성, 정치의 특성, 민주주의 특성을 정의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Margaret: 2016년 3월에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얘기해 주시겠는지요?

Pasquale: 2015년 3월입니다.

Margaret: 아, 2015년 맞아요.

Pasquale: 3월 13일, 14일, 15일 추모일을 하고자 생각하지 않았고 오늘 날 함께 일치의 전망의 빛으로 무엇보다 끼아라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메시지, 곧 거대한 정치의 고귀함의 빛으로 오늘 날 세상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끼아라는 정치를 성소로서 말하기에 정치를 하는 사람의 큰 책임감과 무엇보다 오늘 날 세상에서 세계화는 위기이며 매번 더 모순과 분열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보편적인 일치의 차원에서 세상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Margaret: 로마에서 열릴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주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서도 끼아라를 기억하고 정치계에 끼아라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주는 예술

Paolo: 우리는 선물에 대해서 말했고, 이 합동전화를 통해 수많은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전쟁과 고통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내딛었던 희망과 기쁨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주어야 하고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끼아라 루빅은 밀라노의 파비아노와 콩고의 프랜시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막*: 3 쟌대회 2000년 6월 22일 - 스위스에서 끼아라와 연결<sup>2</sup>

(박수)

파비아나: 차오 끼아라, 밀라노에서 온 파비아나입니다. 종종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우리에게 그 물건들을 사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소비주의에 우리를 밀어줍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끼아라: 소비주의는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납득시켜야 할 것이에요. 자전거나 다른 물건을 갖고 난 후에는 실증 날 것이에요. 얼마 간은 행복하겠지만 후에는 지루할 것이에요. 행복은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데 있어요. 한번 주도록 해 보세요. 행복이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성서도 “가지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는가요? 미소를 주고, 경청을 하며, 조언을 하고, 빵 한 조각을, 옷을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늘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게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르쳐 주

었던 다른 이들의 마음 또한 채우게 되어요. 이것이 올바른 노선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주의는 안녕을 고하고, 우리가 부르는 대로 온전히 “주는 문화”를 실천하게 될 때, 이런 상상력은 사라지는 것을 볼 것이며,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이 남게 될 것이에요. (박수)

자막: 폰탐 (카메룬), 2000년 5월 8일<sup>3</sup>

(박수)

끼아라: 콩고에서 왔지요.

프랜시스 (프랑스어로 질문, 이태리어 자막): 저는 프란시스이고 국가 정세로 인해 여기에 오지 못한 로베르토와 3젠의 이름으로 이 질문을 합니다. (...)

사랑하는 어머니 끼아라, 우리는 콩고의 3젠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3젠들처럼 우리도 주는 문화를 살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3젠들은 거의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매일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는 문화를 살 수 있을까요?

끼아라: 일단 주는 문화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문화예요. 사랑할 때 주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문화”라고 불러요. 물론 콩고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으며,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있고 어느 날은 없고, 옷도 단 벌인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영신적인 것을 줄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학교에 다니는가요?

프랜시스: 네, 학생이에요.

끼아라: 만일 한 친구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면 그를 가르쳐주며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빵 한 조각을 주는 것과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의문을 지니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것을 보게 되면 그에게 조언을 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조언은 우유 한 잔과 같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고통 받고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은 중요한데, 너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야”라고 그를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위로하는 것은 옷을 주는 것과 같아요.

또 누군가 너에게 악을 행한다면 용서하는 것이에요. 앞서 연극에서 본 것처럼 용서하는 장면이 있었지요. 용서는 그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소리를 내며 성가시게 한다면 참고 견뎌야 하기에 참아내는 것이에요. 인내심을 지니고 참아내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또한 꽃 한 다발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최고로 성세하고 거대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살아있는 이들, 부모님들,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다른 것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 모든 것을 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하듯 하느님께서 그분의 섭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빵, 옷,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에요. 아무튼 안심하도록 하세요. 모니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콩고를 위해 하느님의 섭리가 도달했기 때문이에요.

프랜시스: 감사합니다. (박수)

## CONCLUSIONE

Margaret: 엠마우스, 아름답고 풍요로운 합동전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성탄과 새해를 위해 전 세계에 어떤 기원을 하고 싶으신지요?

---

3 Chiara Lubich alle comunità dell’Africa , risp. n.3



**Emmaus:** 일단 선물과 기쁨, 무엇보다 천상에서 오는 선물들로 가득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합동전화와 이 해를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마음 속에 느낍니다. 올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해에 무엇을 할까요? 누군가가 내게 “시작되는 올 한 해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짧은 문구를 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바로 12월 7일 날 도달했는데, 그 날은 끼아라의 네를 기억하는 날로, 우리 모두가 그 네로부터 태어났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올 해가 네의 해가 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만이 아니라 그 네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를 위해 올 해를 네의 해가 되게끔 하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기쁘고 충만한 네를 드리고 싶다는 것을 뜻해요. 의문이나 무지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에 저항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은 무언가를 청하시는 예수님께 늘 항상 네라고 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소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에게 네라고 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으며 갑자기 찾아오는 고통에 네라고, 모든 고통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버림받으신 예수님께 네라고 늘 네라고 답하는 것이에요. 올 해 전 세계에서 한 마음으로 네를 드리고 이 네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며, 지금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이 네가 세상을 기쁘게 해 주고, 성탄을 위해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기쁨을 지니고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을 기쁘게 해 주기를 바라요. 모두에게 축하를 보내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Paolo:** 엠마우스 감사합니다. 즉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행을 했지만 이 시기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특별한 장소, 베드레헴을 향합니다. 그곳 공동체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인사를 녹음해 보냈습니다.

*(musica)*

**Una donna:** 온 세상에 평화를 몸소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드레헴에서 인사보냅니다.

**Un uomo:** 그분의 평화가 온 땅에 임하시기를 청합니다.

**Una ragazza:** 삶과 사랑의 은사로 가득한 성탄과 새해를 기원합니다.

**Tutti insieme:**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려요!

*(musica)*

**Margaret:** 베드레헴에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이들에게 인사하고 성탄 날 우리 모두의 인사를 그 동굴의 예수님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aolo:** 3명의 4젠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케르, 마리아 끼아라, 아마이아에요. 스페인 북부 빌바오의 4젠들로 우리 부모님들과 동생 이안과 함께 해요. 다음 주 말 이 도시의 모든 4젠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시에라 레온, 시리아 같은 나라들을 도와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었던 소식들에 대해 감사해요. 이제 모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기를 바라요. 모두에게 성탄 축하드려요."

*(Applausi)*

Margaret: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며, 베들레헴 동굴의 예수님께 전 세계의 네를 전해 주기를 청합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합동전화 사이트에서 몇 시간 후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각각의 소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Paolo: 편집부, 기술진, 통역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rgaret: 무대 뒤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열정을 다해 지금 하고 있고 해 온 일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전 세계에서 보냅니다.

Paolo: 다음 합동전화는 2015년 2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과 시작했기에 그들과 끝마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와 둘이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를 듣기 전에 합동전화 편집부와 기술 팀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 축하드립니다!

GB (in italiano): 와 별뿔별이네! (*pausa*) 평화의 표징이지. (*pausa*) 세상 곳곳에 도달해야 하지만 (*pausa*)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거야 (*pausa*) 와  
Musica e continua azione

GB (in italiano): 전염되는 별이네!

Margaret: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Paolo: 모두에게 성탄 축하드립니다

Margaret e Paolo (Saluta in arabo, in inglese, in francese, in portoghese)

Margaret: 우리가 인사할 수 있는 언어가 끝난 것 같아요. 성탄 축하드립니다!

Paolo: 차오, 감사합니다. (*Applausi*)